



: 2026 2 10 7:04



번행초 / *Tetragononia tetragonoides* (Pall.) Kuntze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번행초속 |
| 과국명 | 번행초과 |

| | |
|------|--|
| 과명 | Aizoaceae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번행초과 여러해살이풀 이지만 추운 곳에서는 한해살이풀이 되어 겨울에 말라 죽는 경우가 많고 일본, 중국, 동남아, 호주, 뉴질랜드, 남미, 우리나라 중부이남의 해안 모래사장이나 낭떠러지 등에 자생한다.</p> <p>분포지역 : ► 한국, 일본, 중국, 동남아, 호주, 뉴질랜드, 남미 등에 널리 분포한다.</p> <p>형태 : 여러해살이풀 이지만 추운 곳에서는 한해살이풀이 되어 겨울에 말라 죽는 경우가 많다.</p> <p>크기 : 높이 60cm이다.</p> <p>꽃색 : 노란색</p> <p>개화기 : 7월, 9월, 6월, 8월, 11월, 4월, 5월, 10월</p> <p>잎은 어긋나기하고 삼각형이다. 텔이 없고 명아주처럼 표피세포가 우둘투둘하여 까실하다.</p> <p>개화기가 길어서 4월부터 11월까지 꽃이 계속 피며 제주도에서는 1년 내내 꽃이 핀다. 노란색 꽃이 잎겨드랑이에 1~2개씩 피고 꽃자루는 짧고 굵다.</p> <p>꽃이 지면 4~5개의 딱딱한 뿔같은 돌기와 더불어 꽃받침이 붙어 있는 열매가 달린다. 열매 속에는 여려개의 씨앗이 들어 있다.</p> <p>줄기가 땅에 기듯 뻗어가면서 자라는데 가지를 많이 쳐서 포기가 커진다.</p> <p>줄기와 잎이 다함께 다육성으로 부러지기 쉽다.</p> <p>줄기에는 텔이 없으나 사마귀 같은 돌기가 있다.</p> |